

보도해명자료 (18.9.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수출기업, 밤잠 설친다” (18.9.4, 경향)

1. 기사내용

- 한국정부는 진작에 불거진 미수금 사건을 입막음하기에만 급급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

2. 동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

- 기사에서 인용된 e-메일은 미수금 현황 파악을 통해 이란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용도로 코트라에서 송부한 내용으로
 - 기업 비밀 유지 및 외교협박 목적 등을 위해 대외공개 주의를 요청한 것이며 숨기고자 하는 의도는 아님
- 정부는 정부합동대표단(단장: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)의 이란 방문(6.25-27) 및 이란중앙은행 부총재의 방한(7.26-27) 등의 공식적 외교접촉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이란측 관계기관에 미수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며,
 - 우리 수출기업 미수금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이란중앙은행 및 관련 정부부처에 전달해오고 있음
 - 정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미수금에 대해서도 이란측에 전달하고 조속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김장희 과장(044-203-5650)
조진화 사무관(044-203-5651)
중동아프리카통상과 안세진 과장(044-203-5720)
김형관 사무관(044-203-5721)
외교부 중동1과 윤영기 과장(02-2100-7480)
한우용 서기관(02-2100-7481)